

##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SOPEMI

### 2008 Edition

Summary in Korean

### 국제이주전망: 2008 년도 SOPEMI

국어 개요

국제이주는 OECD 회원국의 최우선 정책이다. 본 연례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이주 동향과 OECD 국 이주정책을 분석하는데 고급 인력, 임시직 근로자, 유학생의 유입과 자유이동이 보장된 지역, 특히 유럽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이민자들의 고용 상태와 이들이 OECD 고용 전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초점을 두며 처음으로 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에 대한 평가와 토박이와 이민자 간의 임금 격차 분석을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들의 입국, 체류, 노동시장 진입에 관한 새로운 법률 등 이주정책 차원에 도입한 주요 변화를 살피고 노동시장 수요에 맞춘 선별적인 이민자 채용도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장려책으로 떠오른다. 국경 통제 강화와 불법이주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이 상세히 분석된다.

OECD2008 년 국제이주  
 보고서에서는 OECD 에 유입된  
 이주민 증대가 나타나는데...

합법적 영구 이민 형태로 들어온 외국인은 계속 늘어 2006 년 4 백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는 2005 년보다 5% 정도 증가한 수준이지만 최근 해에 비해 둔화된 증가율이다. 유입된 이주자 수는 미국, 한국, 스페인에서 크게 늘었다. 포르투갈, 스웨덴, 아일랜드, 덴마크는 가장 큰 이주 증가를 기록했던 반면 오스트리아, 독일은 뚜렷이 줄었다. OECD 에 들어온 임시직 이주근로자 수는 250 만 명을 넘었지만 임시 이주는 영구 이주보다 더디게 증가하는 상태다.

... 특히 가족이주, 취업이주가  
 늘고...

일본을 빼면 가족이주가 영구 이민 유형에서 압도적이다. 가족이주 비중은 이주체제가 크게 가족 위주인 미국(70%), 프랑스(60%)가 여전히 높고 포르투갈은 최근 이주노동자의 가족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나 오면서 높아졌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등 다수의 유럽국에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듯하며 영구 이민자들의 30-40%가 근로 관계로 이주한 경우다. 유럽의 자유이동 이주는 비례적으로 많은데 영구 이주 가운데 자유이동 이주 비중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이 거의 절반이고, 스위스는 70%에 가까우며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20% 미만으로 훨씬 제한된 수준이다. 예로 영국은 자유이동 이주를 통해 대부분의 저숙련 노동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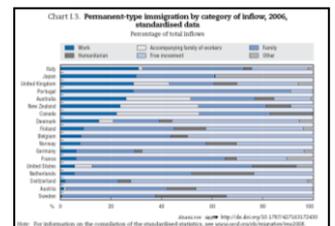
... 정치망명 신청자 수 계속 감소

2006 년 OECD 국가의 망명 신청자는 4 년 연속 감소한 수준이었다. 미국이 41 000 명의 최대망명자를 받아들였으며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은 2 만-3 만명 규모로 전부 줄었다. 1 인당 기준으로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망명자를 가장 많이 받아들였고 망명자 출신국 순위는 이라크가 1 위고 이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였다.

국제학생의 유입이 늘고 있다

전반적으로 2000-2005 년 국제학생 수는 50% 정도 늘었으며 미국, 영국은 각각 12 만명 늘었고 프랑스는 10 만여명, 호주는 85 000 명 가깝게 늘었다. 퍼센트 증가율은 뉴질랜드, 체코, 일본, 한국, 네덜란드가 높았다. 국제학생은 OECD 국에 고속철 노동이주자를 제공하는 잠재 공급처임에도 졸업 후의 국제학생들의 체류 비율에 관한 체계적인 데이터가 여전히 없다.

도표 I.3. 2006 년  
 이민 범주 별 영구이민,  
 표준화된 데이터



유럽인 이주자는 유럽에,  
아시아인 이주자는 유럽 외  
지역에 훨씬 흔하다

2006 년 유럽에 들어온 이민자는 60%가 유럽 출신이었으며 유럽 외 OECD 회원국에 들어온 이민자는 거의 절반이 아시아 출신이었다. 유럽 외 OECD 회원국에 들어온 중남미 출신 인구는 미국에 상당수의 멕시코인이 이주하고 있다는 점을 대폭 반영하며 포르투갈, 스페인은 중남미계 이민자 증대가 명백히 드러난다. 북아프리카 이주자는 85% 정도가 유럽이 목적지인 반면 사하라이남국가 이주자는 약 60%가 유럽 외 OECD 회원국으로 떠난다. 마찬가지로 유럽 외 OECD 국가로 떠나는 이민자 수는 남아시아가 유럽보다 4 배 높고, 동아시아, 남동아시아는 6-7 배 높다.

이주자의 거의 11%가 중국인이고  
폴란드, 루마니아는 이의  
절반이다

2006 년 이주자 출신국을 보면 이주자의 60%가 상위 20 개국 출신이며 중국, 폴란드, 루마니아가 최상위국이었다. 볼리비아, 루마니아, 폴란드는 2006 년까지 6 년 간 최대폭으로 늘었고 터키, 러시아연방, 필리핀 이주자는 2000 년부터 다소 줄었다. 2006 년 독일, 폴란드에서 다른 OECD 국가로 이주한 인구는 지난 10 년보다 크게 늘었다. 해외로 나간 독일인은 폴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 주로 이웃나라를 향했다.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은 폴란드 출신 이민자가 늘었다.

신규 OECD 가입 대상국과  
관계강화 대상국 출신 이주자가  
OECD 내 이주민구의 1/6 이다

2007 년 5 월, OECD 국들은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러시아, 슬로베니아에게 OECD 가입 논의 개시를 권하기로 합의했으며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게는 가입 목적의 관계강화를 제안했다. 2006 년 상기 10 개국에서 OECD 국가로 이주한 인구는 현재 OECD 국에 들어온 이주자 전체의 1/6 에 상당하지만 원래 OECD 내 중국, 인도 출신 거주자가 각각 2 백만 여명에 이르는 만큼 전체 이민자에서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다.

2000 년부터 외국태생인구는 약  
18% 늘었다.

2006 년 관련 자료를 갖춘 OECD 국가 경우에 외국태생 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12%로 2000 년보다 18% 늘어난 수준이다. 아일랜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몇몇 국가는 2000 년 후 전체인구에서 이민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도표 I.4a. & 도표 I.4b. 1995-  
2005 년, 2006 년 선정된  
OECD 국가 이주자 출신국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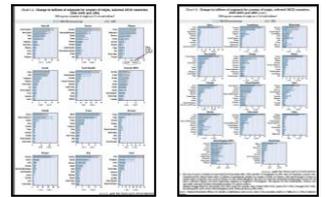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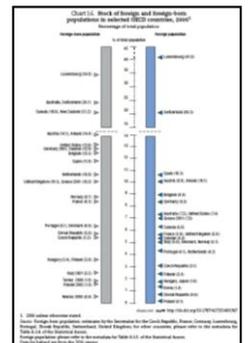


도표 I.6. 2006 년 선정된  
OECD 국가 외국인,  
외국태생 인구 저량



증가율을 이루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OECD  
노동시장에 대한 이민자들의  
기여도에 초점을 둔다**

이민자 유입국마다 큰 차이는 있지만 2006 년 OECD  
취업인구와 노동인구에서 외국태생인구 비중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핀란드는 전체고용에서 이민자 비중이 3% 내  
머문 반면 호주, 스위스, 뉴질랜드는 25%를 넘는다. 이민자의  
전체고용 비중은 특히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에서 뚜렷이  
증가했다.

**대부분의 OECD 국에서 이민자  
남녀 모두가 토박이 근로자보다  
훨씬 덜 버는 입장인데...**

호주를 빼면 이민근로자는 토박이보다 덜 버는 입장이다.  
미국의 이민자는 토박이보다 급여가 낮는데 예로 이민자의  
중간소득은 토박이보다 약 20% 낮고 네덜란드는 15% 낮은  
수준이다. 이민자/토박이 임금격차는 성별 임금격차보다  
좁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 비회원국 출신 이민자가 특히  
불리한 입장에 있다**

해외거주 햇수로 측정한 이민국 경력과 자격이  
노동시장에서 높이 평가되는 것 같은 상황이 여기저기  
나타난다. 아울러 OECD 비회원국 출신 이민자는 임금이  
현저히 낮은 반면 귀화한 이민자들은 거주 기간 통제 후에도  
더 많이 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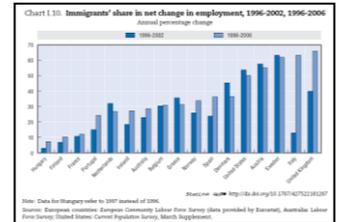
**금년 보고서에서는 이주정책의  
구조적, 제도적 발전을  
재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헝가리, 루마니아, 영국 등 상당수의 OECD 국은  
2006-2007 년 이주 흐름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이주정책  
차원에 뚜렷한 구조적 변화 도입을 결정했다. 법률 변화,  
운용상 변화는 미완성 사업의 종료 또는 지속을 위한 것이  
일부이고 나머지는 캐나다,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에서와 같이 새로운 방안들이다.

**2 개 별도 장에서는 화제가 되는  
사안을 다루는데...**

OECD 국들이 고숙련자를 유치, 유지하기 위해 높은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수많은 저숙련직 일자리에서  
노동시장의 인력난이 생기고 있다. 저숙련직 노동자 수요는

**도표 I.10. 1996-2002 년,  
1996-2006 년 취업자 순변화  
대비 이민자 비중**



**표 I.13. 출신국 및 성별  
토박이 대비 이민자  
중간소득**

Table I.13. Median wage of immigrants relative to the native-born, by country of origin and gender

Native wage	Men		Women	
	Born in OECD	Born outside OECD	Born in OECD	Born outside OECD
Australia	100	102	100	100
Canada	100	102	97	100
France	100	100	96	97
Germany	100	100	96	97
Portugal	100	100	100	100
Sweden	100	100	97	100
United States	100	100	96	97
United Kingdom	100	100	97	98
Netherlands	100	100	97	98

이주노동자로 일부 충족됐는데 저숙련 이주노동자 관리가 OECD 국이 현재 안고 있는 과제사안이다. 저숙련 외국인력의 장기적 고용가능성과 유입국에서 이들의 사회통합이 먼저 우려되는 요소다. 수많은 OECD 국에서 이민자를 위한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이 현재 실시되고 있으며 임시 이주 증대와 함께 역이주와 역이주가 송출국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새로이 고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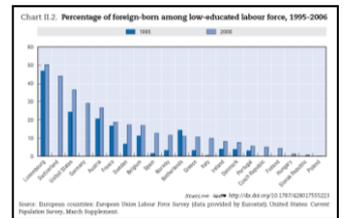
**... 첫 장에서는 저숙련 이주노동자 관리 문제를 다루고**

저숙련 노동 이민은 이민관리체계나 불법의 비관리 경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OECD 노동인력에서 저숙련 노동자들의 참여와 역할, 그리고 이들을 채용키 위한 전략을 분석한다. 수많은 국가들이 저숙련 노동이민자 관리 부문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입장이며 좋은 효과를 보는 듯한 임시이주체계들도 상당히 있다. 하지만 비허가 이민자와 불법 이민자 고용이 여전하다는 점은 현행 정책이 완전히 충분하지 않음을 뜻한다. 노동시장 수요를 정기적으로 철저히 평가하여 적절한 수준의 노동 허가과 입국 가능성을 제공하고 유입국의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이주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듯하다. 저숙련자 이민 프로그램은 고용 주도적인 성격을 띠고 노동허가는 흔히 특정 일자리를 관련하기 때문에 남용의 위험이 있어 근로자의 권리 존중을 보장하는 철저한 감시와 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끝으로 영구적 수요나 현재 수요 충족을 위한 임시 이주 프로그램은 모든 당사자들이 고용관계 유지에 연연하기 때문에 문제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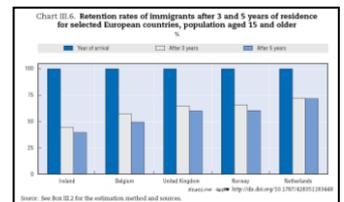
**... 둘째 장에서는 역이주 전망을 새로이 소개한다**

역이주의 범위와 성격은 어떠한가? 고국에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 유형은 무엇인가? 이주자 일부는 이민국에 영구 정착하고 일부는 단기간만 체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점에 있어 이민정책이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역이주는 잘 관리될 수 있는가? 끝으로 고국의 경제발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장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역이주가 이주 흐름의 주요 부분을 이룬다는 결론이 먼저 나오는데 역이주는 생애주기의 양 끝부분에 집중된 현상이기도 하다. 이민국에서 통합수준이 이주민의 귀환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모호하다. 이주자는 개인과 가족 목표에 비추어 이주 경로와 귀환 계획을 세우지만 고국에서 주어진 기회 또한 감안한다. 이런 맥락에서 반드시 귀환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이주자들이 고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상 또는 임시 귀환한 해외 동포를 활용하는 것도 숙련.기술 이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또한 고국과의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되어 이들이 귀환하면 고국 생활에 재적응하는 것도 보다

**도표 II.2. 1995-2006 년 전체 저학력 노동자에서 외국태생인 비중**



**도표 III.6. 선정된 OECD 국에서 3-5 년 거주한 15 세 이상 이민자의 현지 정착률 (%)**



쉬울 것이다. 이렇듯 역이주는 국가발전과정을 뒷받침하거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요소다.

전 출판물은 사이트 [www.oecd.org/els/migration/imo](http://www.oecd.org/els/migration/imo)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개요는 인쇄된 페이지에서 부터 Excel™ 파일을 제공하는 서비스 **StatLinks** 를  
포함시킵니다!

© OECD 2008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